

[TV]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말 타느라 힘들었지만 보람 느껴요”

내달 10일 개봉 앞둔 동물영화 '각설탕'에서 기수역 맡은 임수정

내달 10일 개봉하는 영화 '각설탕'(감독 이한경, 제작 싸이더스 FNH)은 임수정(26)이라는 배우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영화다. 우선 연기력을 갖춘 젊은 여배우여야 했고, 작고 납작한 기수 역에 어울리는 체구여야 했다. 더불어 말과 한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운동신경도 필수. 임수정 외에 떠오르는 배우가 없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임수정 역시 이 영화에 대해 남다른 느낌이 들었더니, 배우와 영화의 공감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합을 더했다.

임수정은 “시나리오를 받고 한 달 남 정도 고민 끝에 출연을 결심했다”면서 “실재하더라도 하자는 생각을 했다. 물론 강력한 ‘리브콜’을 받은 작품이지만, 나중에 오히려 내가 작품의 성패에 대해 우려하는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쪽이었다”며 상큼한 미소를 지었다.

“앤지 해리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나리오를 읽고 일종의 책임감이 들었죠. 물론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많이 봐왔던 장르지만 국내에서는 최초잖아요. 또 어찌보면 스포츠영화, 동물영화의 전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로 그 점이 상업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첫 단추를 켜 사람들이 그만큼의 보람을 얻고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경주 장면은 대역을 썼지만 그 말 타는 장면은 그가 직접 연기를 펼쳤다. 그중에서도 엉덩이를 들고 상체를 앞으로 바짝 기울인 상태에서 말은 일명 ‘퉁키타법’을 실제 기수들도 2년여의 훈련을 거쳐야 제대로 된 자세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전문기술. 그는 3개월의 훈련을 거쳐 이 자세를 소화했다.

“팔, 허벅지 앞근육, 종아리 뒷근육 등 특정부위 근육을 많이 사용



하는 동작이예요. 많이 힘들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으로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약으로, 강으로 버텼죠.”

기수역도 큰 도전이지만 이 영화가 그에게 남다른 또 다른 이유는 첫 단독 주연 영화라는 점이다. ‘장화, 홍련’으로 이름을 얻은 후, ‘-ing’의 여주인공을 꿰찬 그는 ‘새드루비’를 거쳐 네 번째 영화에서 단독 주연을 맡았다. 물론 ‘해상같이 나타난 스타’도 있지만, 이만한 급성장이란. 말의 출산을 지켜보고 새끼 말에게 우유를 먹이는 등 1년여 동안 말과 하나가 됐던 임수정. 이제 영화는 그의 손을 떠나 관객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임수정은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의미 있는 방점을 확실하게 찍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ving TV TV보고 떠나는 세계여행-말레이시아(오전 9시 50분)
안방에서 세계 곳곳을 감상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파라다이스 해변 트레킹 여행 전문 프로그램이다.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창업 24년 국제보청기 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케이블·위성TV 28일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C, K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the day.

www.kjpbcc.com
www.kjpbcc.com
www.kjpbcc.com
www.kjpbcc.com